

일제하 고향력 ‘失業’청년의 농촌생활과 체제편입

— 전남 화순군 동북면 吳然福의 『日記』 (1930) 검토 —

홍 성 찬*

요약

일제하 한국 농촌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상을 육필로써 기록하여 남긴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당연히 그들의 일상과 내면세계를 꼼꼼하게 추적할 자료와 연구도 흔치 않다. 이 글에서는, 이런 연구사의 현황을 염두에 두면서, 전남 화순군 동북면의 한 농촌청년이 1930년에 쓴 일기를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일찍이 光州로 유학하여 公立高普에 입학하였으나 집안사정으로 이를 중퇴한 채 집에서 농사일이나 도우며 살아갔던 그의 고단하고 답답한 일상과 내면세계를 살펴보고, 그 연장선 위에서 결국 그가 식민지 통치기구의 말단 요원(면서기)으로서 편입되어 간 과정을 그의 생존전략 해명이라는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추적하였다.

핵심 주제어 : 일기, 실업, 면서기, 동북면, 일상

I. 서 언

일제하 농촌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내용이 알려져 있다.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생존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막상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육필로써 기록하여 남긴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당연히 그들의 일상세계를 세밀하게 검토할 자료도 흔치 않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사의 현황을 염두에 두면서, 전남 화순군 同福面の 평범한 농촌가정에서 태어나, 1925년부터 光州高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우편번호 120-749. schong@yonsei.ac.kr. 자료이용을 허락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항을 증언해 준 동북면의 吳在燦 씨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等普通學校에 잠시 유학했던 기간을 빼고는, 평생 그곳에서만 살았던 吳然福(1908~1986)¹⁾이 1930년 한 해 동안 동북에서 겪었던 일상적 삶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의 한국청년들, 특히 고학력 청년들의 농촌생활과 거거서의 탈출 과정을 미시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그들의 내면세계에 한 걸음 더 접근하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런 종류의 작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료의 성격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용할 자료는 1930년에 오연복이 쓴 日記이다.²⁾ 사람이란 아무리 일기라고는 해도 그곳에 자신의 내밀한 생각이나 집안사정까지 모두 털어놓지는 않는다. 일기이기 때문에 자신만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해 두는 곳도 많다. 그럼에도 이는 당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내면세계를 가감 없이 살펴볼 좋은 자료임에 틀림없다.³⁾ 그의 일기도 마찬가지이다.

농촌사람의 1년이란 자연계의 순환과 밀접히 연결되어 움직이게 마련이

- 1) 호적상 생일은 1906년 7월 26일이나 실제로는 1908년 7월 22일생이다. 『일기』(1930) 뒷면에 자필로 “我 吳然福 23세 戊申 7월 22日. 右但, 戶籍에는 丙午(25세) 7월 26日生”이라고 적었다.
- 2) 일기책 크기는 가로 14.5cm, 세로 19.5cm이다. 결장 제목은 『檀紀四千二百六拾三年 日記 庚午 全南 同福 吳然福』이고, 그 안쪽에는 「西紀一千九百三十年 日紀二千五百九拾年 檀紀四千二百六十三年 全南 和順郡 同福面 蓮月里 915番地」라고 적었다. 1929년 12월 26일부터 1930년 12월 12일까지 매일 한 면씩 썼다. 각 면 첫줄에는 날짜(양력, 음력), 둘째 줄에는 寒暖, 天氣, 豫記, 曜日, 日辰, 맨 아래 여백에는 본문을 쓰는 欄이 각각 인쇄되어 있다. 그는 그날의 중요 사항을 위의 ‘豫記’ 欄에 적었는데 그걸 인용할 때는 () 속에 넣어 본문과 구분한다. 인용시 사투리는 []안에 표준어를 병기하며, 날짜는 연도(1930)를 빼고 월, 일만 적는다.
- 3) 이 때문에 일기는 근현대사 연구의 주요 자료로서 활용되어 왔다. 아래가 근자의 대표적인 예다. 이해준, 「한말 일제시기 ‘생활일기’를 통해 본 촌락사회상」, 『정신문화연구』 19-4, 1996 ; 박석두, 「일제하 자영지주의 농가경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8 ; 안병직·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 金英喜, 「일제 말기 향촌 儒生의 ‘日記’에 반영된 현실인식과 사회상」, 『한국근현대사연구』, 14, 2000 ; 同, 「일제 후반기 향촌지식인의 현실인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117, 2002 ; 同, 「일제시대 체제 저항과 협력 사이의 중간지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 板垣龍太, 「新旧の間で」, 『韓國朝鮮文化と社會』 2, 韓國朝鮮文化研究會, 2003 ; 同(이타가키 류타), 「식민지의 ‘우울」, 임지현 외,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백승중, 『그 나라의 역사와 말』, 궁리, 2002도 유사한 예이다. 이들 가운데 板垣龍太의 두 글은 경상도 尙州에서 보통학교를 마친 후 大邱로 유학하여 중학 과정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 집안의 농사일이나 거들면서 그야말로 ‘農村의 高等遊民’으로서 ‘憂鬱’한 일상을 보냈던, 그리하여 끝내는 총독부 말단 농정요원(농촌지도원)으로 편입되어갔던 한 농촌청년(차남)의 일기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검토할 오연복의 처지와 너무나도 흡사하여 특별히 참고된다.

다. 일제시기는 더욱 그랬다. 농번기에는 고된 농사일로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농한기에는 그 대신 무료함과 답답함으로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없었다. 물론 이들에게는 꿈과 소망도 있었고, 농촌생활 특유의 느긋함도 있었다. 일상생활에서의 고통과 여유의 크기도 사람마다 달랐다. 건강하고 낙천적이며 일찍부터 농사를 배워 농사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런 대로 잘 견뎠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학교에만 다녀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았거나 일찍이 都市의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도시생활, 도시문명을 체험한 후 다시 농촌으로 들어와 농사를 지었던, 그리하여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기실현의 욕구가 강했던 고학력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힘들었다.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규모가 작더라도 소비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家口主와 그런 가구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채 소비활동을 일일이 통제 받았던 여타 구성원의 처지는 같지 않았다. 가부장적 가족질서와 적장자 위주의 상속관행 속에서 장남과 차남 이하의 처지도 같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도의 차이였을 뿐 대다수 농촌사람들은 자본주의, 일본제국주의 지배하의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매년 농번기와 농한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고단한 시간을 보냈다.

오연복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는 농사철의 힘든 노동과 그에 따른 육체적 고통을 호소한 내용이 가득 차 있고, 농한기의 무료함과 거기서 비롯한 정신적 답답증 역시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는 몸에 익은 유교적 가치관과 소년기로부터 高普 재학 때까지 받아왔던 학교 교육의 영향 아래서 근대 합리주의 사고를 내면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답답한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과 싫증만큼이나 자신의 나태한 생활태도에 대해서도 반성과 후회를 거듭하였고, 그러한 농촌일상에서 벗어나려는 열망도 강하게 표출하였다. 돈을 벌고 싶은 욕망, 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하고 싶은 욕망, 남보다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의 자기실현 욕구 등을 숨김없이 표현한 것이다. 그렇지만 대공황의 시기에, 그것도 식민지의 일개 농촌청년이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도 주체할 수 없는 혐오와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당시 그의 일상과 내면세계를 결정적으로 지배한 것은 돈에 대한 渴症이었다. 돈을 벌어야만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였고, 또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자기실현의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일제하

한국사회는 세계자본주의와 일본자본주의에 고도로 통합된 상태로서 이미 모든 것을 돈이 지배하고 있었다. 同福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일기를 쓴 1930년은 세계대공황, 昭和공황이 절정으로 치닫던 때라서 더욱 그랬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거의 없었고,⁴⁾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였으며 공산품과의 가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게다가 그는 고된 농사일에 견딜만한 튼튼한 육체를 타고나지도 못했다. 오랫동안 학교에만 다닌 터라 농사일도 서툴렀으며, 光州로 유학하여 도시생활과 도시문명을 체험한 터였다. 그는 家口主도 아니고 장남도 아닌 차남이었다. 부친이 집안의 경제권을 장악한 가운데 이른바 '無給의 가족종사자'로서 자영업주에 해당하는 부친에게 아내와 함께 얹혀 사는 처지였다. 힘들게 노동해도 한 푼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더욱이 그는 신혼임에도 처가의 사정 때문에 아내와도 자주 떨어져 살아야 했다. 이래저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단한 상황이었다.

희망도 출구도 없을 것 같았던 그의 생활은 1930년 10월 말에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주지하듯이 일제는 1910년대 초부터 面을 한국강점의 말단 행정단위로서 편성하고 그 전초기지로서 면사무소를 운영해 왔는데, 바로 이 때 그러한 면사무소(동북면)의 書記로서 취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힘든 농사일과 답답한 농가현실에서 벗어남은 물론이고, 난생 처음 자신의 生業을 가져 매달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경제적 자립과 자기실현 기회를 동시에 가지게 된 것이다. 당연히 정신적 안정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그의 일기는 대공황이 절정으로 치닫던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농촌의 청년들, 특히 농촌지역의 고학력 失業[미취업]청년들이 겪었던 일상적 삶과 내면세계를 추적할 요긴한 소재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그의 사례는 그와 같이 평범하고 나약하기까지 했던 식민지 한국의 청년들, 특히 고학력 청년들이 왜 그토록 자연스럽게 일제 총독부 권력의 말단 구성원으로서 편입되어 갔던가를 그들 나름의 생존전략 추구라는 관점에서 꼼꼼하게 검토할 좋은 소재가 아닐 수 없다.

4) 1930년의 실업률(지금 개념과는 다르다)은 무려 12.5%였다. 1931년에는 15.0%로 늘었다. 許粹烈, 「日帝下 朝鮮의 失業率과 失業者數 推計」, 『經濟史學』 17, 1993.

II. 자료와 환경

오연복은 전남 화순군 동북면 蓮月里 1구 915번지에서 태어났다. 吳效相(1887~1953)의 5남 2녀 가운데 차남이었다. 동북읍내를 서쪽에서 감싸며 북에서 남으로 흐른 동북천을 건너 그 북쪽으로 약 1킬로미터 못 미친 곳에 蓮谷마을이 있고 그 마을 북쪽 끝 왼편 산자락에 집이 있었다.⁵⁾ 외진 곳이었다. 서당에 다니면서 한문을 배우다가 뒤늦게 읍내의 동북보통학교에 입학한 그는 1925년 3월에 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4월 光州로 유학하여 5년제 公立高普인 光州高等普通學校에 입학하였다.⁶⁾ 열 여덟 살 때였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학력이었다.⁷⁾ 당연히 장래도 촉망되었다. 그러나 그는 집안사정등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⁸⁾ 고향으로 돌아

- 5) 東向의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 건너 정면에 안채(방, 마루, 방, 부엌으로 구성)가 있고, 마당 오른쪽에 남향의 사랑채(부엌에서 대문 쪽으로 디딜방아간, 소마구간[외양간], 행랑간[소마구간에 連하여 남북으로 2間이 배열되었는데 마당 쪽 1間은 오연복이 쓰고 나머지 1間은 머슴 등이 썼다])가 있었으며, 마당 왼편에는 역시 안채에서 대문 쪽으로 퇴비간과 창고가 연속 배치되어 있었다. 담은 돌담이었다. 오연복의 장남 吳在燦 씨 증언.
- 6) 1921년 3월에 네 살 위의 吳在仁, 曹成淳 등과 함께 4년제 동북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으나(제10회 졸업) 이듬해 이 학교가 6년제로 바뀌자 1923년에 다시 들어가 1925년 3월 吳勳鐸 등과 함께 첫 번째의 6년제 졸업생(제13회)이 되었다(『同福國民學校卒業臺帳』). 광주고보는 1920년 4월에 설립인가를 받고 1922년 4월에 공립 학교가 되었는데 그는 光州 吳憲昌(1879년생)의 집에서 下宿하며 학교를 다녔다(吳在燦 씨 증언). 吳憲昌은 동북 오씨 독상파로서 1897~1899년에 同福郡守를 지낸 吳啓鍊의 장남이다. 동북 오씨 잣등파인 그가 거기서 하숙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잣등파 종손 吳在永이 대한제국 말기에 寶城郡守를 지낸 터라서 두 派의 위세가 대등하였고, 이 시기에는 두 派가 협력하여 동북의 인재들을 키워보자는 분위기가 컸던 점이 작용하였던 것 같다.
- 7) 1928년의 전국 公立高普는 15개였고(1912년 2개, 1919년 5개, 1922년 11개, 1925년 이후 15개), 1912~1928년 간에 공립고보에 입학이라도 했던 한국인은 1만 7,676명으로서 1928년도 전체 한국인(1,866만 7,334명)의 0.09%였다. 같은 기간 公立中學, 公立高女, 公立女高普, 私立高普, 私立女高普, 實業學校(관립, 공립, 사립) 등에 입학했던 사람을 모두 합해도(14만 672명, 사립고보, 공사립여고보 입학자를 모두 한국인으로 간주할 경우) 전체 한국인의 0.75%에 불과하였다. 朝鮮總督府編, 『昭和3年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0. 당시 이들 학교 졸업생의 우월의식은 윤용구, 『무명 노학사의 발자취』, 혜안, 1999 참조하였다.
- 8) 언제 中退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후술할 『朴蓮姬日記』(1929)에도 관련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1928년 이전에 그만 둔 것 같다. 입학동기였던 동북의 吳勳鐸은 1930년에 졸업하였다(제6회 졸업). 당시 한국학생의 公立高普 中退率は 매우 높았다. 1912~1928년 간의 입학생은 1만 7,676명이었으나 졸업자는 5,033

와 부친의 농사일을 돕다가, 1928년 말에 화순군 北面의 아산보통학교 졸업생인 두 살 아래의 朴蓮姬와 결혼하였다. 세 살 위의 형이자 장남이었던 吳然賑은 동북면 서기였다. 그래서 면사무소 뒤편 칠정리 722번지로 살림을 나가 살았는데, 형님댁 농사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형은 분가와 함께 재산도 일부 나누어 받은 것 같다.⁹⁾ 따라서 차남인 그가 本家에서 부모를 모시고 동생 다섯과 함께 살았다.¹⁰⁾ 집에는 처가동네에서 심부름이나 시킬 겸해서 데려온 여자아이 하나(曹小禮, 1917년생)와 머슴 둘, 그리고 從弟인 吳然忠(20세, 1917년에 早死한 막내 숙부 吳平相의 외아들)도 함께 살았다. 食率이 어른 여덟, 아이 다섯 등 모두 열 셋이었다.

부친은 연곡마을 북쪽 끝 산골 등지에 논 15두락 가량과 얼마의 밭을 가지고 있었다. 1두락을 200평으로 환산하면 논만 1정보가 넘었다. 이들은 온 가족이 머슴 2명과 함께 농사일에 나서고 농번기에는 수시로 논을 사서¹¹⁾ 그 대부분을 自作하였다. 自作上農으로서 대지주도 아니고 식솔도 많았지만 동북에서는 못되어도 中上層 이상이었다.¹²⁾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남다른 처지였다. 1928년 현재 동북면의 면협의회원이었던 부친은 1930년에도 國勢調査와 동북금융조합(평의원이었을 것이다) 등에 간여하였고¹³⁾ 당시 형님은 면서기였다. 그가 光州로 유학하여 公立高普를

명뿐이고 중퇴생이 8,082명이었다. 光州高普도 마찬가지였다. 1928년도 입학생은 129명인데 그해 졸업생은 46명이고 중퇴자가 106명이었다(352명은 재학중). 公立中學, 公立高女, 公立女高普, 私立高普, 私立女高普, 實業學校를 합해도 사정은 같았다. 1912~1928년 간에 7만 9,939명이 입학하고 2만 5,326명이 졸업하였으며 3만 5,407명이 중퇴하였다. 조선총독부 편, 앞의 책.

9) 형의 가족은 처 韓天禮(28세, 한국 나이), 딸 瑛玉(9세), 瑛子(7세), 順(5세), 아들 在奉(2세) 등이다. 일하는 아이 白三禮(15세)가 함께 살았다.

10) 부 吳效相(44세), 모 曹德秀(45세), 吳然福(23세), 처 朴蓮姬(21세), 남동생 然富(20세), 然實(16세), 然哉(13세), 여동생 然完(9세), 燾(7세) 등이다.

11) 논은 밭과 술을 먹고 날쌌을 주어 일을 시킨 일꾼을 말한다. 농촌에서 일일고용 노동력을 일컫는 민속용어인데, 날뎌팔이가 완전한 계약노동자를 일컫는다면, 논은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할지라도 對面관계에 있는 근린집단내의 성원들이 서로 협동한다는 의식 속에서 주고받은 노동력이다. 따라서 報酬지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고, 특히 보수를 정한 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大同契 등에서 정한 그해의 임금범위내에서 고용자가 男, 女, 老, 幼 등에 따라 주는 대로 노임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품앗이에서 완전한 임노동체로 옮겨가는 중간형태였던 셈이다.

12) 1930년에 동북면 邑三里(독상리, 칠정리, 천변리) 주민 가운데 1정보가 넘는 농지를 소유한 호는 30호로서 읍삼리 전체 戶의 5%에 불과하였다. 洪性讚, 『韓國近代農村社會의 變動과 地主層』, 지식산업사, 1992, 70면.

다닌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오연복은 高普까지 다닌 터라 동북의 보통사람들보다 학력이 월등히 높았다. 그는, 우발적이고 또 열두 살 어린 때의 일이지는 했지만, 전국에서 만세시위가 한창이던 1919년 3월 20일에 동북보통학교 학생인 몇 살 위의 吳在仁, 吳德基, 曹成淳, 吳在孝 등과 함께 그곳 3·1만세시위를 촉발한 장본인이기도 하였다.¹⁴⁾ 그가 진학한 光州高普도 1920년대 내내 민족적 갈등에서 연유한 여러 문제 때문에 동맹휴학이 끊이지 않았다.¹⁵⁾ 당연히 그도 거기에 상응한 정도의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¹⁶⁾

그는 광주, 화순, 담양 등지에 친구도 많았다. 그러나 자주 만날 수는 없었다. 당시 동북사람들은 활동반경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오연복조차 동북을 중심으로 화순, 능주, 광주, 담양, 옥과를 잇는 지역이 이동반경의 전부였다. 그나마 1년에 한두 차례 처가로 가는 길에 잠시 들르는 것이 다였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였고, 아이들도 수학여행(遠足) 편에 光州등지를 구경하는 게 전부였다.¹⁷⁾ 버스와 기차도 이용하였지만 차비 때문에 대개 걸어서 다녔다. 당연히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았다. 식자층의 경우 이를 대신한 것이 편지였다. 1930년 한 해 동안 오연복은 상당량의 편지와 연하장을 주고받았다. 人便보다는 주로 郵便으로 전했는데 모두 39통을 받고 37통을 보냈다. 닳새에 한 통을 주거나 받은 셈인데 대부분 농항기에 집중되었다. 한창 농번기인 7월과 10월에는 한 통도 주고받지 않

13) 『일기』 4. 12. 9. 19.

14) 동북보통학교에서 川邊시장 쪽으로 가던 이들이 國喪으로 흰옷을 입은 노인들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독립만세를 외치자 그곳 노인과 아낙들이 합세하여 순식간에 시위를 번졌다. 동북보건소 헌병들은 시장을 덮쳐 吳在仁, 吳在孝, 曹成淳 3인을 체포하고 시위를 진압하였다. 이들 3인은 동북보통학교장 平田豊官(1913. 4~1923. 3)의 설득으로 곧 풀려났다. 和順郡誌編纂委員會, 『和順郡誌』, 175면.

15) 1923년 1월 일본인 교사의 학생구타와 同盟休校, 1924년 7월 일본인 교장 배척을 요구한 동맹휴학과 학생 400명 무기정학 및 이에 반발한 학부형회와 전남도민대회 개최, 1925년 9월 웅변대회에서 불온 연설한 학생의 퇴학조치, 1928년 6월 일본인 교장 및 교원 배척과 朝鮮史강의를 요구한 동맹휴학 등이 그 예이다. 『조선일보』 1923. 1. 30, 1924. 6. 23 ; 『동아일보』 1925. 9. 15, 9. 17, 1928. 6. 29, 8. 24.

16) 1930년 2월에 光州에 들린 그는 친구들로부터 그 다음날 광주학생사건 공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公判廷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방청객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섰던 것으로 보아 정치적 관심이 아주 높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일기』 2. 18. 2. 19.

17) 『일기』 4. 12. 4. 16, 10. 25.

았다. 식자층에게는 편지 쓰는 일이 일종의 소일거리이기도 했던 셈이다. 그는 藥, 농기구광고지 등을 얻기 위해서 京城, 東京으로도 편지를 보냈지만, 대개는 北面 院里의 처가에 머물고 있던 처나 장모, 또는 처가동네 친구인 朴甝岍이나 광주, 담양 등지의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쳤다.

동북의 同福吳氏 문중은 獨上派(少尹公派)와 竹田派(갯등파, 監察公派, 南峴吳氏로도 불렸다) 둘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서로 협조 경쟁하면서 사실상 이곳의 邑權을 좌우해 온 토착 향리가문인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팔목할 진출을 보였다.¹⁸⁾ 그리하여 일부는 吳秉南, 吳亨南, 吳建基 등처럼(모두 독상파이다) 전국에 이름을 알린 대지주가 되었고, 다른 일부는 同福郡(독상파 吳啓鍊)과 寶城郡(죽전파 吳在永)에서 一郡을 통치하는 郡守가 되었으며, 다른 일부는 1914년에 동북군이 화순군으로 편입된 가운데 동북면의 면장이 되어 면행정을 좌우하였다.¹⁹⁾ 그래서 이들의 정치적 자세는 일찍부터 보수적, 타협적, 친일적 분위기로 기울었고 이 지역의 정치적 정서도 거기서 크게 영향받고 있었다. 이들은 1920년대 전반에 同福靑年會 조직에 주도적으로 나서 청년회 이름으로 미취학자를 위한 부설강습소, 여자야학을 설치하고, 同福留學生慰勞會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를 열어 젊은이들에게 새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웅변과 토론기술을 익히게 하는²⁰⁾ 등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이곳에서는 동북 오씨로 태어난 것 자체가, 他姓들 입장에서, 일종의 특권이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오연복은 竹田派였다.²¹⁾ 그 宗孫이자 한말에 寶城郡守를 지냈던 吳在永, 오재영의 사촌으로서 1915년부터 동북면장으로 재임한 吳在迥과는 각각 11촌간이었다. 그런데 당시 죽전파는 문중차원에서 문중의 결속과 그 청소년들의 장래발전을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다. 1920년 3월

18) 洪性讚, 앞의 책 : 同, 「韓末·日帝初 鄉吏層의 變動과 文明開化論」, 『韓國史研究』 90, 1995.

19) 일제하 동북면장은 吳然默(1912. 4~1914. 8 재임기간, 竹田派), 吳秉南(1914. 9~1914. 12, 독상파), 吳在迥(1915. 1~1940. 4, 죽전파), 吳啓完(1940. 5~1943. 4, 독상파), 吳建基(1943. 5~1945. 8, 독상파) 등이다. 두 파가 번갈아 면장을 맡았다.

20) 洪性讚, 앞의 책, 1992, 107~113면. 청년회에서 '사회急務가 男子教育乎 女子教育乎'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것이 그 예다.

21) 이곳 죽전파의 내력은 洪性讚, 앞의 글, 1995.

에 '報本追遠, 가족친목, 改過遷善, 장래발전'을 목표로 가족친목회를 결성하고 매달 15일 문중청소년을 상대로 講話會를 연 것이 그 예였다.²²⁾ 이들은 皆勤회원을 표창하며 講話會 출석을 적극 독려하였는데, 1920년의 강화제목(연사는 죽전파의 어른들이었다)은 크게 네 종류였다. 첫째는 '墓祭及茶禮에 대한 순서,' '四禮와 선조에 대한 해석' 등 報本追遠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²³⁾ 둘째는 '우리 친목회의 교육,' '단체심의 함양' 등 문중결속을 강조한 것이다. 강화회 때 客地회원의 편지를 소개하고 객지로 떠나는 회원을 일일이 환송한 것도 같은 예였다. 셋째는 '高尚한 志氣,' '早起早寢하라,' '忍勤天下無難事,' '시간의 制定의 필요,' '공부를 渴時에 음식먹음가치[같이] 하라' 등 청소년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다. 넷째는 '미국대통령의 苦學출세,' '西鄉大將師,' '獨逸鐵血宰相의 역사,' '제주도 유람한 감상' 등 세상사를 이해시키고 큰 포부를 가지도록 독려한 것이다. 문중청소년에게 서로 긴밀하게 결속할 것이며 고상한 뜻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라고 지도했던 것이다. 이들 역시 토론과 웅변기술 연마에도 힘썼다. '웅변'과 '交際'라는 제목으로 강화회를 연 것, '牛勝於馬'나 '水勝於火'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것이 그런 예였다.²⁴⁾

오연복은 이런 문중에서 태어나, 제사를 모시고 설과 한식 등에 수십 명이 함께 성묘를 다닌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랐다.²⁵⁾ 그는 대도시인 광주에서 고보까지 다닌 터라 당시의 농촌현실이나 부모世代의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의식구조도 가지고 있었다. 주민 대부분이 겨우 동네 藥房이나 醫生을 찾던 시절이었음에도 그는 광주 道立病院을 찾아가 고액의 혈액검사를 받고 비싼 주사를 맞았으며 동경으로 약을 직접 주문하기도 하였다. 공황으로 농촌에 돈이 마르고 농가 대부분이 재래식 농기

22) 『家族親睦會綴』, 친목회장은 宗孫인 吳鎭(오재영 아들), 총무는 吳聖鐸, 간사는 吳然脈(오연복 형), 吳榮鐸이다. 정기총회, 임시총회, 講話會(오후 8시 시작) 등을 가졌다.

23) "선조와 부모란 자기의 근본이라. 자손과 後裔란 枝葉과 果實이라. 근본을 붓도두지 아니하면 지엽이 盛하지 못하니니 근본을 붓도둔단 방법은 효성"임을 가르친 것도 같은 예다. 『南峴吳氏家族親睦會3回講話材料』.

24) 『家族親睦會綴』.

25) 『박연회일기』 1929. 4. 5, 9. 22 : 『일기』 1930. 1. 15, 1.3 0, 2. 1~2, 4. 6. 『박연회일기』는 오연복 처의 1929년도 일기이다. 결장 제목은 『四千二百六拾二年日記帳 朴蓮姬』이다.

구로 농사짓던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京城의 농기구상점으로 편지를 보내 농사에 쓸 발동기와 정미기의 광고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근대의학, 근대농학, 자본주의 근대문명의 세례를 받은 까닭에, 몸은 농촌에 있었지만, 머리와 의식의 한 부분은 농촌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都市的 일상세계를 浮遊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교의 전통과 儀式 속에서 자란 까닭에 비록 부모세대와는 적지않은 세대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 애정 있고, 형제간 화목하며,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내면화한 사람이었다.

그는 보통학교와 高普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합리주의를 배워 그것 역시 내면화한 터였다. 그래서 사주, 점, 굿 등 祈福的 민간신앙이 널리 퍼진 속에서도 “將來事는 未知일 것”이라며 사주쟁이조차 믿지 않았고 그의 집 안도 동네 雨祭에 참석하거나 정초에 토정비결을 보는 게 다였다.²⁶⁾ 그는 도시에서 남보다 많이 배우고도 고향에 돌아와 험한 물골로 농사나 짓고 있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지만,²⁷⁾ 다른 한편으로는 勞動이란 본디 神聖한 것이며 세상 역시 그런 ‘實業主義 시대’로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다.²⁸⁾ 和順場에 가서 직접 밤(栗)을 팔면서 “장돌뱅이가 아닌 이상 참으로 못할 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된 “世態의 銳利함”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²⁹⁾

그가 일기를 쓴 1930년의 한국사회는 자본의 힘이 농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상태였다. 세계대공황이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농촌의 금전적 궁핍도 극에 달하였다. 동복도 마찬가지로였다. 공동체 의식은 날로 희미해져 갔고,³⁰⁾ 같은 동네에 살면서 밤중에 남의 논의 다 자란 벼 모가지를 한 가마니씩이나 베어서 달아나는 사람도 있었다.³¹⁾ 사회주의 사상이 크

26) 『일기』 1. 5 : 『박연회일기』 1929. 2. 25, 6. 17, 10. 28~29, 11. 13, 12. 10.

27) 『일기』 3. 20. 오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오다. 나는 일을 하느라고 험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몹시 부끄럽더라.

28) 『일기』 3. 18. 수박구덩이 열을 파다. 소죽을 쑤어주다. 나는 한평생을 이 노릇을 해먹고 사잔 말이냐. 잠잠해라[참참 화라]. 그것보다도 實業主義니까 그리고 이 노릇이 神聖하다고 볼 수 있다.

29) 『일기』 12. 26. 和順서 밤을 파는데 장돌뱅이 아닌 以上 참으로 못할 일. 그것은 世態의 銳利함.

30) 동네에서 호당 1명씩 동원하여 洞里畚 경작을 위한 퇴비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빠지려는 ‘간사한’ 사람이 10명이나 되었다. 『일기』 8. 10, 8. 12.

게 확산된 가운데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도 나왔다. 그러나 대세는 아니었고 그 역시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³²⁾ 동복은 자본의 거대한 힘 아래서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자본 없는 사람은 지랄도 못할”³³⁾ 세상일뿐이었다.

그런데 당시 오연복은 경제적으로 전혀 자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학교를 중퇴한 후 고향집으로 돌아와 부친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일년 농사를 스스로 기획 집행한 것도 아니고 농사수입을 자신의 주관 아래 처분한 것도 아니었다. 집안의 경제권은 부친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부친을 도와 농사일을 한 후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타서 쓸 뿐인 ‘無給의 家族從事者’에 불과하였다.³⁴⁾ 요즘 말하는 고학력의 ‘未就業’ 청년으로서 통계상으로는 ‘有業者’로서 분류되겠지만 그 내면을 냉정하게 말한다면 일종의 고학력 청년실업자일 따름이었다.

그는 무척 꼼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1930년 음력 정월 초이들인 1월 31일부터 자신의 현금지출 내역을 일기장 뒷부분에 일일이 적어두었다(부록). 이를 월별로 합산하면 2월(1월 31일 포함) 5원 25전, 3월 2원 97전, 4월 1원 61전, 5월 20전, 6월 65전, 8월 60전, 10월 30전 등으로서 아홉 달 동안 총 11원 58전, 월 평균 1원 29전을 쓴데 불과하였다.³⁵⁾ 7

31) 『일기』 10. 7.

32) 1930년 3월 11일 일기에 “邑內를 가서 冥陞君과 같이 朴吳洙氏宅으로 河三松君宅으로 해서 돌아왔다. 晝飯은 河三松君 집에서 먹었다. 金錢 없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恨이더라. 河藥房任에(의) 主義!! 사실이 좋았으면 特筆하겠더라만은”이라고 적었다. 河藥房은 독산리에서 洞畚을 회사하고 無料진료를 퍼 큰 인심을 얻었던 河采鍾의 아들 河永泰일 것이다. 동복면 技手이자 오연복의 친구였던 河二松과 그 형제 하송, 하삼송의 부친으로서 한국전쟁 때 동북농민위원회위원장을 맡아 군경에게 총살당하였다. 그의 ‘主義’란 사회주의 사상을 말하는 듯하고, 오연복도 그에 동조(‘特筆’)하지 않은 것 같다.

33) 『일기』 1. 13.

34) 朝鮮國勢調査의 직업분류에 ‘手助’(가족노동자)로 기록된 계층을 말하는데 1930년 현재 403만 8,000명으로서 전체 有業者의 42%가 넘고 그 6할이 여성이었다. 이는 日本國勢調査에 ‘使用人’(산업상 지위)으로 분류된 “봉급이나 임금 및 기타의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자 또는 「가족으로서 세대주 혹은 기타의 가족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가운데 「」 안을 말하는데(길인성, 『일제하 계층구성과 소득분배에 관한 소고』, 『서강경제논집』 29-2, 서강대 경제학연구소 2000) 요즘 한국의 고용통계에서는 이들을 ‘무급의 가족종사자’라고 부른다.

35) 그는 식구들 몰래 동경의 天照堂으로 藥(11원)을 注文했다가 부친에게 들켜 속을 꿰었는데(『일기』 2. 14), 웬일인지 앞의 지출기록에는 이를 적지 않았다. 그걸 합하면 2월 지출 16원 25전, 아홉 달간 총지출 22원 58전, 월 평균지출 2원 40전이다.

월과 9월에는 아예 한푼도 쓰지 않았다. 그나마 그중 4원 8전은 藥값(藥代, 藥蓬, 固腸丸, 膏藥, 胎毒膏, 아세노고, 東京으로 주문한 약값까지 합하면 15원 8전)이고, 1원 20전은 2월에 화순, 광주를 거쳐 北面 院里의 처가로 갔다가 동북으로 돌아올 때까지 쓴 여비였다. 光州로 유학하여 高普까지 다녔고, 아내가 있었으며, 1930년 7월 이후로는 딸자식까지 두었던 스물세 살의 고학력 청년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뾰족한 전망도 없이 돈 때문에, 금전의 결핍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그의 형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³⁶⁾ 1930년 3월 현재 동북금융조합에 460원이나 되는 빚을 지고 있었고, 6월에는 집안 농지를 담보로 조선식산은행에서 또 돈을 빌렸다.³⁷⁾ 그해 동북면 서기 초임이 월 20원이었으니 금융조합 빚만도 2년 치 월급에 해당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처가사정으로 신혼의 아내와도 자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다.³⁸⁾ 그의 일기는 이런 고단한 상황을 배경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Ⅲ. 농촌생활과 그 내면

1. 농사철의 육체적 고통

1930년 현재 집안의 生業은 농사였다. 이들은 우선 논농사를 15두락 가량 지었는데 1두락은 小作(반타작)을 주고³⁹⁾ 나머지는 自作하였다. 논

36) 씹씹이가 컸던 것 같다. 빚이 많은 데도 高價(6원)의 외투를 산 데서 그렇게 생각 된다. 『일기』 11. 3. 아래도 이와 관련된 듯하다. 『일기』 5. 10. 형님께서서의 분부로 石堂까지 논쭈 좁을 하러 가게 되었었는데 途中에서 卍仲父任: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만 두었다. 들은 바 말은 좋지 못하다고 云云.

37) 『일기』 3. 8 : 5. 13. 吳啓完 씨가 왔더라. 殖産銀行書記 同伴. 그리하여 吾家之 畓을 畓爲(?)하였다 : 6. 19. 面事務所 小使가 와서 根抵當書留가 왔으니 돈을 찾아다 달란다고 하여 갔었다. … 數手料(印紙代) 總合計 3원 58전에서 3원 10전은 去 11일에 會計하였기 今日은 그 殘金을 除한 99원 52전을 찾았었다.

38) 1928년 말에 결혼한 그는 1929년 1월 3일 본가로 왔다. 아내는 1월 21일에야 新行을 왔다. 그 후 아내는 친정아버지의 외병과 사망 등 친정 사정 때문에 4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10월 18일부터 약 넉 달 반을 친정에서 보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이에도 여러 번 처가에 갔었다(1929. 4. 14~19. 5. 8~10. 11. 19~26. 12. 5~23. 1930. 1. 2~6. 2. 19~3. 1).

농사는 3월 20일에 논을 갈고, 전년도 8월 말 이래 퇴적하였던 퇴비와 金肥(암모니아)를 施肥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였다.⁴⁰⁾ 못자리 준비는 4월 22일부터 했다. 가을에 논바닥에 파종하였던 紫雲英을 베어내 비료로 쓰고 쟁기질을 하였다. 4월 27일에는 쟁나락(種稻)을 골랐다. 浸水選으로서 모두 15斗 3升을 물에 담갔다가 나홀 후 건져냈다.⁴¹⁾ 파종은 5월 2일부터 하였다. 5월 6일부터 볍씨에서 촉이 돋았다. 그리하여 6월 초까지는 시비와 제초 등 못자리 관리에 몰두하였다.

모내기는 6월 중순부터 하였다. 줄을 맞추어 심는 正條植이었다. 모내기는 1년 농사 중 노동력이 가장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적지 않은 논을 썼는데, 6월 15일부터 모내기에만 대충 남자 31명, 여자 50명을 썼다. 移秧을 마친 후에는 稻熱病이 생긴 모나 뜯 모를 다시 심었다. 7월에는 하루가 멀다고 거의 매일 김매기를 했다. 이 해에는 유난히 비가 많아서 防川에 특히 많은 노력을 들였다. 7월 말에는 암모니아, 과린산석회 등을 시비하였고, 8월에는 피도 뽑았다. 논농사 방법은 신품종인 穀良都, 多摩錦 등을 浸水選으로써 골라 파종한 후, 正條植으로 移秧하고, 紫雲英, 암모니아, 과린산석회 등을 施肥하는 전형적인 개량농법이었다. 총독부 농업정책은 이곳에도 빈틈없이 스며들어 있었다. 추수는 10월 초부터 하였다. 10월 4일에 우선 여섯 배미의 나락을 베어 다음날 그 일부로 밥을 해먹었다. 벼 베기와 방아찝기는 그 후에도 계속 되었다. 그리하여 11월 1일 현재 이들이 베어놓고 털지 못한 나락만 논 12두락 분이었다.

밭농사는, 대개의 농가가 그랬듯이, 종류가 무척 다양하였다. 보리는 벼농사가 끝난 10월에 쟁기질하고 파종하였으며, 이듬해 3월에 비료를 주고, 6월에 베어, 7월 초 타작을 마쳤다. 이들은 이모작으로서 논보리도 심었다. 6월에 논보리를 베어내고 모를 심었는데, 밀도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보리와 함께 베어내 타작한 후 그곳에 감자를 심었다. 자급용으로서 각종 소채류도 재배하였다. 2월 초순에 채소밭을 정리한 후 3~4월에 갈아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렸는데 파, 마늘, 상추, 고추, 깨, 콩(大豆), 호박

39) 『일기』 10. 29. 논들이 못갈림 나락을 지고 와서… (朴萬六이가 번 논 1斗落에서 14負 4束. 一便當 7負 2束).

40) 이하의 서술은 별도의 註가 없는 한 『일기』와 『박연회일기』에 따른다.

41) 『일기』 4. 27. 種稻選擇及沈水也. 穀良都 2斗(小料), 多摩錦 11斗(小料), 차나락 1두 3승(소두), 유두베 2승, 我國베 8두, 右合計 15斗 3升 : 5.1.

(南瓜), 오이(胡瓜), 배추(白菜), 무(大根), 감자 등 극히 다양하였다. 감자는 3월(夏至감자)과 7월 두 차례 심었고, 8월에는 김장용 배추와 무 등을 파종하였다.

이들은 참외(眞瓜), 수박(西瓜) 같은 과일도 심었다. 특히 수박은 換金作物로서 그가 “今年에는 工夫하는 一便 수박을 놔서 잔돈푼이나 써 볼”⁴²⁾ 요령으로 집안 농사일과는 무관하게 따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배하였다. 300구덩이를 놓아 한 구덩이에서 50전씩 150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었다. 그 경우 비료대금 9원 10전(암모니아 1俵 4원 10전, 肥料 5원)을 빼도 140원 가량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계산하였다. 그리하여 3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적어도 156곳이 넘는 수박구덩이를 혼자서 파고, 4월 7일 하루에만 그중 약 80구덩이에 수박을 놓고 元肥로서 鷄糞을 주었다. 고급비료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보름 후 돌아보니 수박 씨가 골아 대부분 못쓰게 되었다. 결국 그는 5월 8일에 그 동안 힘들여 구덩이를 파고 비료로서 귀한 鷄糞까지 주었던 수박구덩이에 배추와 무를 심고 말았다. 이상과 현실은 달랐던 것이다. 집이 산 아래에 있었기에 주변에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가 많았다. 그래서 가을에 밤, 감, 대추를 많이 따다. 밤은 까서(때로는 밤송이 채) 저장했다가 겨울에 내다 팔았다.

이들은 동북의 특산물로서 다년생 작물이던 牡丹과 人蔘도 재배하였다. 1930년 3월 초에는 人蔘을 사다가 移植하였고, 10월에는 牡丹을 수확하여 팔았다.⁴³⁾ 삼(大麻)도 이곳 특산물이었다. 3월에 삼 논과 밭을 갈아, 4월에 파종하였고, 6, 7월에 베어내 썬 후 껍질을 벗겨 말렸다. 삼을 베어낸 논에는 모[벼]를 내었고, 밭에도 다른 작물을 심었다. 대마는 일부 자금용으로 쓰고, 일부는 이듬해 봄에 직접 또는 남을 주어서 베(때로는 明紬도)로 짜 시장에 내다 팔았다. 면화도 재배하였는데 자금용이었던 것 같다.

양잠, 양우, 양돈, 양계도 하였다. 양잠은 봄(춘잠), 가을(추잠) 두 번을 쳤다. 3월부터 대(竹)를 사다가 채반(蠶箔)을 만들고 뽕밭에 시비하였다. 5월 초에는 春蠶을 掃立하였다. 누에치기는 노동력이 단기에 집중적으로

42) 『일기』 3. 6.

43) 『일기』 3. 23, 3. 25 : 10. 10. 牡丹은 잘못 들어서 80圓에 落札也. 참 재수 없지(財數).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누에덕을 매고, 뽕잎을 따고, 누에똥을 치우고, 누에를 올리고, 고치(蠶繭)를 따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 누에가 자랄수록 더욱 그랬다. 봄누에를 친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는 논농사, 밭농사(보리, 밀, 소채)가 겹친 때라서 온 가족이 밤낮없이 매달려도 “눈코를 못 뜨게,” “잠이 와서 못 견디게” 바빴다.⁴⁴⁾ 이 해에는 어린 누에가 자꾸 죽어서 더욱 그랬다. 이렇게 거둔 누에고치는 곧 내다 팔았는데 공황 탓으로 繭價가 크게 떨어졌다.⁴⁵⁾ 가을누에는 9월 초에 소립하였다. 그래서 8월부터 뽕밭을 매는 등 준비에 착수하여 9월 내내 고되게 일했다. 이것 역시 收繭 즉시 내다 팔았다. 농가의 필수적인 존재였던 소도 키웠다. 소갈(牧草)을 베고, 외양간을 보수하였으며, 병이 나면 침과 약을 주었다. 닭도 키웠다. 4월에 3차에 걸쳐 네 배를 안겼고, 5월 1일에는 병아리 26마리를 내렸다. 계란과 닭은 시장에 내다 팔았으며, 돼지도 마찬가지로였다.

동복은 물이 많은 곳이었다. 蓮月里 서쪽에는 同福湖가 있고 동북천도 흘렀다. 물도 맑았다. 특히 이곳 만경대 큰바위 아래에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온 가족이 수시로 고기잡이(투망, 천렵, 낚시)를 하었는데, 이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중요 수단으로서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닌 생산활동이었다. 겨울철부터 죽대(물고기 잡는 기구)를 만들고 그물을 준비하여 4월부터 나섰다. 그의 일기에 기록된 1930년 한 해 동안의 투망횟수는 4월 2회, 5월 4회, 6월 6회, 7월 6회, 8월 3회였다. 물이 많은 6~7월에는 닷새에 한 번 꼴로 갔다. 1929년도 『박연회일기』에도 오연복이 7월에 7회, 8월에 6회의 고기잡이를 다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틈틈이 투망도 손질하였다. 고기잡이는 ‘달 뜬 후,’ ‘밤늦게,’ ‘새벽’에 귀가하는 고된 노동이었다.

농가의 일은 이뿐이 아니었다. 퇴비생산을 위해서 풀을 베어 퇴적해야 했고, 월동용 땔나무를 해서 들여놓아야 했으며, 초가의 이영도 교체해야 했다.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죽대를 만들거나, 솔뿌리를 캐다가 그 속의 질긴 심을 쪼개서 그걸로 나무그릇 터진 자리나 칫바퀴를 꿰매고 베 날에 풀칠하는 술을 동이는 등 이듬해 생업에 대비하였다. 副業에도 나섰다.

44) 『박연회일기』 1929. 6. 2~6. 8. 6. 12~13.

45) 『일기』 6. 8. 고치를... 팔다. 승 7×200刀에 特等 27원 47전. 邑內 형님 것이 特等 2매 50刀에 7원 82전. 연하 형님 것이 特 2매 850刀, 1等 1매 金 10원 54전 : 6.7. 妻家宅에서 蠶繭 3×目를 보내... 特等半 1等半에 팔았었다. 代價 11원 14전. 어찌 그다지 繭價가 低落이 되었었는지.

동북은 양잠이 성한 곳이라서 누에채반(蠶箔)이 많이 필요하였다. 양잠규모가 큰 사람들은 채반 1개에 6전 가량을 주고 그 제작을 外注에 맡겼다. 오연복 역시 1930년 1월 9일 “내 手中에도 돈을 넣어 볼” 요량으로 싹 채반을 맡아서 만들기 시작하였다. 하루 평균 5개씩 만들어 일당 30錢 가량을 벌 계획이었다. 대나무와 대나무용 칼을 사용하여 하루종일 앉아서 채대를 휘고, 날대를 깎고, 뒤패를 다듬어 절는 고된 작업이었다. 그는 仲父宅으로 가서 함께 작업하거나 집으로 일감을 가지고 와서 밤늦게까지 하였다. 동생 然富도 마찬가지로였다. 이 밖에도 돈이 되는 일이면 온 가족이 나서서 무엇이든 하였다. 딱주(약초의 일종)를 캐고, 대(竹)를 심고, 산나물과 들가지를 캐고, 솔뿌리를 캐서 굵고 훑었으며, 꿀벌도 쳤다.

농사철에는 머슴과 놈들은 물론이고 부친, 모친, 아내, 동생 등 온 가족이 총동원되었다. 그러나 일은 줄지 않았다. 논농사, 밭농사, 양잠 등이 겹친 5, 6, 7월과 10월은 더욱 심했다. 그의 아내가 “農夫의 아내는 부지런하여야 할 것이더라”⁴⁶⁾고 토로한 대로 농사철 농부에게는 부지런함이 최고의 덕목이었다. 당연히 육체적 고통이 컸다.⁴⁷⁾ 六身이 노곤하고 기력이 없어 力士나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해 보았지만 될 일이 아니었다.⁴⁸⁾ 건강도 부실한 데다 학교만 다닌 터라 농사일이 서툴러 더욱 그랬다.⁴⁹⁾

그러나 정작 그를 괴롭힌 것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다. 그는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었다. 공부를 계속하여 어딘가 취직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농사가 지겹고 힘들었으며 또 그렇게 죽도록 일해 보았자 별 효과도 없다는 생각이 가득하였다.⁵⁰⁾ 농사란 곡식을 곳간에 넣기 전에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이었고 매년 풍년이 들지도 않았다.⁵¹⁾ 게다가 농

46) 『박연회일기』 1929. 7. 6.

47) 『일기』 3. 21, 3. 23, 5. 29, 6. 10, 7. 2~4, 7. 9, 7. 12, 7. 22~23, 8. 1, 8. 25.

48) 『일기』 3. 17.

49) 『일기』 4. 16. 쟁기질을 잘못하기 까닭에 일이 참 되더라 ; 6. 9. 今日 보리타작을 잔 해보다. 못 따라서 하겠더라 ; 7. 11. 골에 아니 백헌 일.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며 손끝은 닳아져서 아파 못 견디. 이놈의 노릇을 언제나 아니해 먹고 사자는 말이냐 ; 3. 23. 今日는 勞働에 대하여 新記錄을 많이 냈다. 즉, 동소매 준 것도 記錄, 1일에 25장군 준 것도 記錄이다. 連 7장군 준 것도 記錄인가 한다.

50) 『일기』 5. 21.

51) 『일기』 3. 17, 8. 31.

사를 위해서는 많은 뉘을 써야 했다. 1930년의 경우 연초부터 8월 23일까지 이들이 쓴 뉘은 모두 227人半이었다.⁵²⁾ 이들에게는 藪이나 나무같은 현물로도 임금을 주었지만 현금으로도 지불했다.⁵³⁾ 비료대금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것 역시 현금을 써야 했다.⁵⁴⁾ 농촌에 돈이 마른 데다 농산물 가격은 크게 떨어졌고 공산품과의 가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그는 光州에서 高普를 다니면서 근대문명, 근대농학, 근대합리주의의 세례를 받은 터였다. 그래서 농사를 짓더라도 지금처럼 무계획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노임과 비료대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좀더 “計劃的으로 事業을 해나가야 할”⁵⁵⁾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발동기와 정미기 같은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 아래 京城의 山岡發動機店으로 그에 관한 廣告紙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계를 하여 수중에 돈을 넣되 좀더 과학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 아래 光州의 양계장(畜産課)까지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說明을 들(기도)” 하였다.⁵⁶⁾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는 부친의 농사일을 돕고 있는 無給의 가족종사자에 불과하였다. 자신의 주관 아래 농사일을 기획하고 실천할 권한도 강한 의지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정미기나 발동기 값은 턱없이 비쌌고, 畜産課에서 파는 種卵(1개 12전)이나 百日鷄(1원 50전)도 무척 비쌌다. 돈, 자본이 없으면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 공부하는 틈틈이 환금작물인 수박을 재배하여 잔돈뿐이나 써보려던 생각도 수포로 돌아갔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농촌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다.

그는 아무리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실업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한 평생 이 노릇을 해먹고” 살아간다는 게 기가 막혔고 그렇다고 다른 무엇을 해서 먹고살지도 막연하였다.⁵⁷⁾ 그래서 농사철에도 이런저런

52) 『일기』 8. 23. 今年今日까지의 雇人(但, 芸田之雇人은 除하고)을 計算하여 보니 總合 227人半인데 그 중 賃金支拂者 187人半이더라… 計劃的으로 事業을 해나가야 할 것인데.

53) 『일기』 10. 19. 나무를 몽구는데… 合計 100負 人員은 6名… 吳然粹氏만이 賃金支拂之人이다(午前半, 吳然廈 但, 然忠과 품아시… 姜學祚 午前半 午後半 薪1負로 賃金除).

54) 『일기』 3. 7. 肥料에 대하여서 現金支拂의 것을 이렇게 쓰게 되니 그 收入은 많다할지나 그 支拂한 것이 어디서 다 나올까. 그리고 支出이 적다하면 그 나머지가 어디가 現著히 나타나 있는지.

55) 주 52)의 『일기』 8. 23.

56) 『일기』 1929. 12. 28.

57) 『일기』 3. 18~19.

煩悶으로 “멍하니 앉았기가 일쑤”였다.⁵⁸⁾ 당연히 심사가 늘 불쾌하였다. 農家의 일이 많기도 하려니와 유독 자기 집에만 많은 일이 생긴다는 비관적인 생각도 들었다.⁵⁹⁾ 거둬들인 노동으로 팔, 다리, 허리가 아프고 손끝도 닳아서 아팠다. 논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였다. “이놈의 노릇을 언제나 아 니해 먹고 사자는 말이나.”⁶⁰⁾ 9월이 되어도 일은 지지부진하고 기력이 없 기도 마찬가지였다. 일을 하면서도 “돈, 돈, 돈,” 돈 생각뿐이었다.⁶¹⁾ 답답 하여 삭발을 해본 적도 있지만 소용없었다.⁶²⁾

2. 농한기의 정신적 답답증

농촌생활은 고된 노동의 연속만은 아니었다. 농번기라 할지라도 때로는 만사를 제쳐둔 채 늘어지게 잠을 자거나, 그의 표현대로 ‘그작저작’거리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농한기인 겨울은 휴식의 기간이었다. 동북에서는 정월 보름에 읍내 독상리와 천변리 주민이 패를 나누어 이틀간 줄다리기를 시합을 하였다. 추석 다음 날에는 씨름대회(脚戲鬪)를 하였다.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축제로서 큰 구경거리였다. 보통학교 학예회나 동네 굿도 마찬가지였다. 때로는 和順이나 綾州까지 가서 忠臣江, 映壁亭 등 명승지를 돌아보고 진행중인 철도와 철교 공사도 구경하였으며, 신문과 소설을 읽고 축음기나 테니스를 즐기기도 하였다. 근대적인 소비와 오락도 경험한 것이다. 농촌생활 특유의 느긋함을 즐기기는 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틈틈이 ‘뱃살을 잡고’ 웃는 때도 많았고, 마실을 다니고, 수다를 떨고, 재봉침을 하러 다녔다. 穀雨 물을 마시러 가기도 했다. 가끔은 친정나들이도 하였다. 처가동네 사람들은 서방굿, 작란굿, 팔인각시굿도 즐겼다. 이들 역시 경치 좋은 만경대에 가서 배를 타고 놀기도 하였다.

농한기인 겨울은 휴식의 기간만은 아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곳간이 가득 차고 이듬해 농사가 걱정되지 않았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그때 무언가를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던 사람은 느긋하

58) 『일기』 5. 20.

59) 『일기』 5. 22.

60) 『일기』 7. 11.

61) 『일기』 8. 17.

62) 『박연회일기』 1929. 7. 17.

였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딱히 할 일도 없는 데다 소비욕구를 채울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날 그날을 무료하게 보내야 했다. 담담증과 조급증이 났고 그럴수록 건강도 좋지 않았다. 일찍이 도시생활을 체험하였거나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아서 장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더 심했다.

잘 알려진 대로 청년실업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와 고통은 단기적으로는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증상으로 나타내지만,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면 자신감 상실이나 좀더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증상이 함께 유발되면서 때로는 자살충동 같은 극단적인 증상도 보인다.⁶³⁾ 식민지 농촌의 많은 고향력 실업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었고 이 점에서 오연복도 예외가 아니었다.⁶⁴⁾ 그는 꿈도 있었고, 희망도 품어 보았다. 1930년 새해를 맞아 새 일기장에 일기를 쓰면서 그 맨 앞에 자신의 심사를 “惡年의 해는 보냈건마는. 罪悚千萬 惶悚無比. 世上事 世上일 될 성부른 나물(나무)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忙一하나 收入이 殆無乎. 今年之數는 어떻게 될 장본인지”라고 극히 비관적으로 적은 후, 바로 다음 면에 “吉兆 우리 門前에 길 빛나시압소서. 雄心憤發 終始一貫”이라고 적었다. 작년은 ‘惡年’이었지만, 올해는 집안에 吉兆가 가득 비추기를 희망하면서 자신도 ‘雄心憤發’할 것임을 다짐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1930년 새해 벽두(양력)에 그는 담양에 있었다. 옛새 전인 12월 26일에 동복을 떠나 화순, 광주, 담양을 거쳐 화순군 북면 원리의 처가로 가던 참이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그는 닭이 새 해나 올 때까지 花鬪와 麻雀을 하였다. 이를 후 처가에 도착해서도 花鬪와 蓄音器를 가지고 놀았다. 그러나 재미가 없었다. 오히려 “虛送歲月”일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처가에서 며칠을 보낸 그는 1월 6일 동복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처가에 그대로 머물렀다. 심심했다. 할 일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수중에 돈이 없

63) 이종한, 「실업자의 심리적 장애에 대한 예방적 접근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모색」, 『1998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발표문』, 1998.

64) 이는 대공황기의 미국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종후, 「불황의 사회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4-1, 1998 ; 김명연 노연희,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7-1, 1998 ; 오수성, 「국제금융위기 후 실직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0-2, 2001 ; 장재운 외,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3-2, 2004.

어서 그랬다. 답답증과 조급증이 났다. 1월 7일 아침 읍내에 나갔던 그는 거기서 동북의 光州 留學生들이 자동차 편으로 광주로 가는 것을 보았다.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소주를 사들고 왔다. 돈 없는 자신에게 화가 “더럭 더럭” 났다. 물론 “實業을 해 볼 作定”도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資本問題”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1월 8일도 마찬가지로였다.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고쳐보겠다고 다짐도 하고, 심기일전을 위해서 책상정돈도 해 보았지만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가려움증까지 겹쳐 마음이 잡히지 않았다. 1월 9일도 마찬가지로였다. 종일 족대나 만들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였다. 어떻게든 手中에 돈을 넣어보려고 이리저리 ‘空想’도 해보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도대체 이렇게 날을 보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내일부터 샷 채반(蠶箔)이라도 맡아다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는 한편 경성의 山岡發動機店으로 정미기와 발동기 광고지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1월 10일에는 감기까지 겹쳤다. 입 언저리가 터져 밥 먹는 것은 고사하고 입 벌리기조차 힘들었다. 샷 채반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거침없이 나왔다. “아, 아, 아, 火가 나서 죽을 地境이다. 원수의 金錢. 오늘 같은 心事로 여러 날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일이 나고야 말 것이다.” 돈이 원수였다.

1월 11일에는 정신조차 희미했다. 일찍 깨었다가 어느덧 다시 잠들었고 전신에 힘이 빠졌다. 소여물과 돼지 밥을 주는 것도 잊었다. “來년에는 무엇을 하고 사노… 장래가 ‘暗暗’하였다. 1월 12일도 마찬가지로였다. 전날처럼 채반을 만들었으나 대칼이 들지 않아 손까지 베었다. 갑자기 비감한 생각이 치솟으며 심사가 틀어졌다. 소화불량까지 겹쳤다. 모친의 생일날 인데 스물세 살이나 먹은 나이에 아무 것도 해 드릴 수 없었다. 금전 없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생각뿐이었다. 1월 13일에는 아침부터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노곤하였다. 山岡發動機店에서 광고지가 왔는데 一襲에 520원이나 하였다. 엄청난 금액이라서 “아! 資本 없는 사람은 지랄도 못할 노릇이더라”는 탄식만 나왔다. 술뿌리를 캐러 갔으나 땅이 얼어 캐지 못한 채 멀쩡한 양말만 버렸다. 되는 일이 없다. 양계에나 힘써보자고 스스로를 위안하였다. 1월 14일에는 꿈자리조차 사나웠다. 종일 불쾌하고 머리가 무거웠다. 모든 게 원망스러웠다. “金錢은 何處에 皆在고? 썩은 세상.” 그야말로 썩은 세상이었다.

심사가 이러하니 매사가 아니꼽게 보였다. 1월 16일 오전에는 소화불량과 전신피로가 가지지 않은 채 읍내 대지주인 吳秉南의 집에 弔問을 갔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면장 吳在迥의 “거만한 姿態가 참으로 비위가 상”했다. 다음날은 오병남가의 出葬日이었다. 만사주가 비단으로 87枚나 되었다. 壯觀은 장관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루종일 蓮谷 叔父宅에 가서 蠶箱을 만들다가 저녁 때 집으로 일감을 가지고 와서 하었는데, 여전히 배가 불편하고 가려움증도 가지지 않았다.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참 氣찬 世上이다… 歲月은 가나 金錢은 아니 온다. 허허 참 탈이다.” 그는 1월 28일에 京城과 東京으로 약 광고를 보내달라고 3전짜리 우표를 붙여 편지한 바 있었는데, 근 열흘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었다. 새삼 노엽고 기분이 상했다. “그만 떠먹나 그것들 참. 3錢 切手[우표] 맞아 먹고, 배가 그 얼마나 부르고 참. 이런 망녕이 같은 일이 어데 있나.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나고는 말 것이다.”⁶⁵⁾

돈은 비위만 상하게 하지 않았다. 불효까지 하게 만들었다. 그는 가지고 있던 패물(金半指, 金叉)이라도 팔아서 건강부터 추스를 생각이었다. 그래서 1929년 12월 26일에 처가로 향하면서 동북에서 원리로 직행하는 길을 두고 일부러 光州를 거쳐갔다. 독립병원에서 진찰이라도 받을 생각이었다. 거기서 혈액검사를 받아 혈액에 독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그는 광주 남선병원 의사 김범수와 상의하였다. 그래서 사정이 되는 대로 606號 주사를 맡기로 하였다.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에 독한 항생제로 흔히 썼던 살바르산(salvarsan) 606號라고 부르는 주사약이었던 것 같다. 1월 13일 그는 김범수로부터 606號의 1회 주사대금이 5원이라는 전갈을 받았다. 예상했던 3~4원보다 비쌌다. 그래서 화순군 內外面 水里의 醫生에게 그 주사를 더 싸게(1회에 4원, 15회) 맞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고, 결국 1월 18일 그에게 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부친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다. 근대의학에 대한 세대간의 의식차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1회에 4원씩 15회를 맞으려면 60원이 소요되었다. 동북면 초임 서기의 석 달치 월급이었으니 그럴 만도 하였다. 물론 그는 주사를 맞아도 건강이 곧 좋아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건강만 회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 보고 싶었다.⁶⁶⁾ 주사대금

65) 「일기」 2. 6.

66) 「일기」 1. 18.

은 패물을 팔아서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형수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마침 작자가 있다고 하여 동생 편에 그것을 보냈다. 1월 19일 패물대금을 받으러 읍내로 갔다. 그런데 사줬다던 사람이 값을 깎으려고 하였다. 다시 “비위가 상해서 그러면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 형수에게 부탁하고 돌아왔다. 일이 이렇게 되자 주사대금을 줄 수 없었다. 돈을 받지 못한 醫生도 돌아가질 못하였다. 그렇다고 부친에게 여쭙어 볼 상황도 아니었다. 몸은 아프고, 돈은 안 되고, 불효를 했다는 죄책감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金錢을 소비할 목적으로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補血劑를 쓰려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며, 病도 얻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이때까지 몸을 아무렇게나 굴린 적이 없고, 酒色과 酒草도 모르고 살아왔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운수마저 불길하여 그렇게 되었을 따름이니 억울할 뿐이었다.⁶⁷⁾ 게다가 패물을 팔아 주사를 맞을 생각이었기에 친정에 머물고 있던 임신한 아내에게까지 연락하여 속히 와서 함께 주사를 맞자고 기별한 터였다. 그런데 부친이 화를 내며 맞지 못하게 하니 자기만 虛言한 꼴이 되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금전 때문이었다. 주사도, 패물도, 불효도, 虛言도 모두 돈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하루하루 青春은 늙어가고 不具한 몸 때문에 부친께 火만 품게 한다는 불효의식까지 겹쳐 애가 닳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화가 번쩍번쩍 날 때가 많”았고, 급기야 분노는 친정에 있는 아내에게까지 뻗쳤다.⁶⁸⁾ 아내의 편지를 받아도 반갑지 않았고, 아내의 사랑이 不足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무시당한 느낌이였다. 그러나 달리 보면 모친 혼자 둔 채 차마 떠나올 수 없다는 아내의 처지나 처가 사정이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니었다. 그래서 “화도 나고, 그럴 듯도 싶고, 그러나 못된 생각도 나서 머리가 막 아파” 견딜 수 없었다. “기찬 세상”이었다.⁶⁹⁾ 사나운 꿈자리도 계속되었다. 별 것 아닌 일에도 자주 놀라고 “가슴이 우든거려서 … 그렇게 몇 번만 놀라면 精神에 異狀이 생길 것 같[다고]” 토로할 정도였다.⁷⁰⁾ 동생들에게도 스스로도 과했다 싶

67) 『일기』 1. 16, 1. 19.

68) 『일기』 1. 20.

69) 『일기』 1. 21, 1. 23.

70) 『일기』 1. 22.

을 만큼 공연히 화를 냈다.⁷¹⁾

심사가 문란하니 매사에 집중도 되질 않았다. “마음이 不安한지, 몸이 불안한지, 精神이 희미하여서 장차 일도 五里霧中이고 곧 지난 일도 칼로 물 벤 듯이 그 痕迹을 알지 못”할 지경이었다.⁷²⁾ 정신을 집중하려고 ‘산술 문제’도 풀어보았으나 될 리 없었다. 일이 안 되려니 어렵게 맞은 주사조차 말썽이었다. 주사 맞은 팔뚝이 퉁퉁 부어오르며 굽히지도 펴지도 못하게 아팠다. 굽기라도 하면 ‘병신’이 될까 겁났고 그러면 차라리 ‘자살’이라도 하는 게 낫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들었다. 心火로 살 수 없었다. 탄식이 거듭되었다. “아! 서럽고 애달아 못살겠구나.”⁷³⁾ “日中 火를 단단이 끼리고(끓이고)” 사니, “아! 참! 참. 世上에 나같이 無福者가 어디 가서 있어.”⁷⁴⁾

1930년 설날(1월 30일)을 맞았으나 신년계획도 희망도 없었다. 빈민과 비관뿐이었다. 식구들이 성묘를 간 텅 빈집 쓸쓸한 방에 홀로 앉은 “然福의 前途!!”가 可憐하였다. 새해인사차 친척들과 이웃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나 들고 읍내에서는 出初式(始務式)을 한다고 야단인데, 그는 “無福者,” “참으로 못난 사람”이라는 자의식으로 괴로워했다.⁷⁵⁾ “萬病이 蜂起”하니 서러워 못 살겠고, “믿을 곳 없어서 못 살” 지경이었으며, “나날이 끝난(끓는) 가슴”으로 “心緒는 散亂無窮”이었다.⁷⁶⁾ 그렇다고 절박한 심정을 터놓고 이야기 할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아내가 더욱 보고싶고 의지하고 싶었다. 아내 꿈도 자주 꾸었다. 그러나 아내는 옆에 없었다. 애증이 교차했다.⁷⁷⁾

종일 장기나 두고 화투나 치고 신문이나 뒤적이며 “그저 滋味 없이 歲月을 보”냈다.⁷⁸⁾ 봄은 왔건만 세상일이 아득하고 막연했다. 날씨는 화창한데 “그작저작 歲月을 虛送하노라니” 갑갑해서 견딜 수 없었다.⁷⁹⁾ 스스로도 “내가 이 模樣이다가는 畢竟 무슨 탈이 나지 아니할까” 걱정이었다.⁸⁰⁾ 그래서 어디로든 가보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뚜렷이 갈 곳도 없었

71) 『일기』 2. 11.

72) 『일기』 1. 24.

73) 『일기』 1. 27.

74) 『일기』 1. 28.

75) 『일기』 1. 31.

76) 『일기』 2. 1.

77) 『일기』 2. 2, 2. 3.

78) 『일기』 2. 4, 2. 7.

79) 『일기』 2. 5, 2. 8.

80) 『일기』 2. 9.

다. 성묘든 무어든 하여간 읍내라도 가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竹杖을 찾아도 마땅한 것이 없고, 며칠 후 처가에 갈 참인데 당장 신고 갈 신발조차 마땅치 않았다. “이렇게까지 까잡할 줄 누라서 斟酌하였겠나. 金錢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인고.”⁸¹⁾

그는 희망도 없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런 정신적 질곡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었다. 기나긴 하루해를 무사히 넘기려고 화투, 장기, 마작도 해보고, 축음기도 들었으며, 신문도 읽고, 소설도 읽었다. 편지도 쓰고 엽서도 보냈다. 소상팔경(瀟湘八景, 판소리 短歌)도 외고, 테니스도 쳤다. 공부에 몰두할 생각도 해보았다.⁸²⁾ 그러나 소용없었다. 소심한 성격인데다 친정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아내에 대한 집안 안팎의 시선도 의식되었다. 집도 외진 곳에 있었다. 광주에서 高浦까지 다닌 사람이 집에서 농사나 짓고 있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읍내 출입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럴 돈도 없었다. 그럴수록 활동반경은 줄었다. 친구가 찾아와서 며칠 묵다가 떠나도 딱하고 미안하게도 “金錢이 없으니까 車表도 못 사주고, 洋襪 한 켤리(결레)도 사주지 못하였”다.⁸³⁾ 그래서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끊은 채 연월리 골짜기에 파묻혀 혼자서 속만 끓이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방황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길이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돈, 금전의 결핍을 해소하는 일뿐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자기 수중에도 돈을 넣어보려고 이리저리 궁리하였다. 잔돈푼이나 만져보려고 수박을 놓고, 샷 채반을 맡아 만들었으나 모두 허사였다. 돈을 번다는 것은 돈(자본)이 없어서 불가능하였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사회였다. 2월 3일 그는 결국 앞서 언급했던 패물을 팔아 목돈 45원을 만들었다. 그걸로 뭔가 해볼 생각이었다. 가장 손쉬운 돈벌이는 뭐니뭐니해도 이자놀이였다. 그래서 그중 20원을 월 3%나 年 30% 금리로 대부할 경우 첫해부터 20년 후까지 매년 원금과 이자 합계가 얼마나 될지를 복리로 계산하여 일기 뒷부분에 적어보기도 하였다. 새거리(長利)를 놓을 생각도 하였다. 2월 13일(정월 보름) 洞里에서 洞里畚을 공동 경작하여 얻은租

81) 『일기』 2. 10, 2. 12.

82) 『일기』 3. 4. 冊床을 짜려고 板子… 2枚를 僅僅히 밀고 맡았었다. … 아! 날마다 놀기만 하여서 頗이 났다… 매일 煩悶이 極甚하다… 언제나 마음대로 살아볼거나. 돈은 何處에서 求할거나 ; 3.16. 工夫는 하려고만하고 말고말고하다.

83) 『일기』 3. 13.

를 매각하자 그중 30斗를, 장리를 놓으려고, 4촌 然廈 형님, 동생 然富와 함께 10斗씩 샀다. 그러나 이자놀이도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농촌에 금전이 마른 때라서 꾸어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돈은 받지 못한 채 봉변만 당하기도 하였다.⁸⁴⁾ 그는 패물을 팔은 돈으로 소를 사서 남에게 주어 키운 후, 그걸 되팔아 차익을 얻을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3월 5일에 소 한 마리를 23원 50전에 사서 아랫마을 李東順에게 키우도록 한 후 9월 초에 되팔려고 했으나 25원밖에 받을 수 없었다. 결국 10월 22일에 그 소를, 돈 16원을 얻어 받는 조건 아래, 和順의 梁贊寶가 沙坪場에서 사 온 어린 소와 바꾸었다. 쟁기질도 제대로 못할 만큼 어린 소였다. 이래저래 되는 일이 없었다.

9월에는 집안에 '一大災禍'가 벌어졌다. 그의 형이 1,200원이나 되는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벌써 세 번째였다.⁸⁵⁾ 논밭을 합하여 1, 2정보 남짓한 농지를 소유했을 뿐이던 그들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⁸⁶⁾ 그래서 그만큼 새로 차입하여 메워야 했기에 차입금 누계가 일약 2,500원으로 불어났다. "무엇으로 辦償하며, 무엇으로 生計를 營爲할거나?!" 온 가족이 落膽千萬하였고 부친은 화병으로 몸져누웠다.⁸⁷⁾ 대공황의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현금부족에 시달렸던 그들로서는 더욱 절박한 상황이었다.⁸⁸⁾

IV. 생존전략으로서의 체제편입

희망도 출구도 없을 것 같았던 그의 일상은 10월 말에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형이 화순군 農會의 서무서기로 전근하면서 그를 동북면 서기로

84) 『일기』 11. 21. 崔致範에게 債金받으러 갔다가 然寶가 그 子息에게 맞았다고. 그리하여 父親께서와 然廈然粹 형님께서도 가서 父子를 잔(좁) 때려준 模樣이더라.

85) 『일기』 9. 9.

86) 1930년 6월 19일 그는 집안 土地를 담보로 형이 食산은행에서 빌린 100원을 동북금융조합에서 찾아 吳鍾燮에게 건넸다. 그런데 그가 면사무소 숙직실에서 단둘이 회계한 후 영수증을 주지 않자 크게 불안했다. 그래서 그날 일기에 그 사정을 상세히 적고 돈을 건넨 시간이 "面事務所 時計로는 午後 4시 15분. 郵便所 時計로는 오후 4시 5분 頃"이라고 特記해 두었다. 보통사람에게는 100원도 이처럼 큰 액수였다.

87) 『일기』 9. 9~10. 9. 25.

88) 그 후에도 이들은 돈을 꾸어서 돈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일기』 12. 5.

추천한 것이다. 10월 28일에 그 소식을 들은 그는 이발을 하고 면사무소로 가서 이력서와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30일에 이를 제출하였다. 11월 2일에는 면장으로부터 성심껏 일하라는 訓示와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참으로 돈벌이로 나서기는 今日이 第一步를 내놓는” 것이었다.⁸⁹⁾ 면사무소에는 서무계, 재무계, 권업계 등이 있었는데 그중 ‘勸業係’ 근무 및 산업단체 事務處辦을 보직으로 받았고 월급은 20원이었다. 갑작스런 일이라서 한편으로는 얼떨떨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업무에 워낙 생소하여 겁도 났지만 못할 일도 아니었다. 당시 전라남도 면직원 가운데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1할대에 지나지 않았다.⁹⁰⁾ 졸업은 못했지만 高普까지 다녔으니 업무를 감당 못할 처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동안 공부한 걸 써먹지 못하여 안타깝게 여겨왔는데⁹¹⁾ 차제에 자기실현의 기회를 얻은 셈이었다.

동복은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자 동복 오씨들의 위세가 당당한 곳이었다. 면장 오재형은 비록 그의 11촌 조카뻘이었지만 그보다 나이도 많고 동복에서 우체소장(1908. 11~), 군서기(1910. 10~) 등을 거쳐 1915년부터 면장으로 일해 온 민완의 행정가였다. 면직원들도 모두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⁹²⁾ 면사무소는 면협의회원이던 부친이 수시로 드나들고 옛그재까지도 형이 근무한 곳이었다. 그리고 이곳 동복 오씨들은, 1914년에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동복군, 능주군을 화순군으로 통합하고 1917년에 새로운 面制를 실시하기 오래 전부터 동복군의 행정실무를 맡아온 토착 향리가문이었으며, 그 후에도 줄곧 이곳 面長, 面書記가 되어 고향 면의 행정을 맡고 있었다. 당시 읍내에는 일본인도 살았지만 보통사람들이 그들과 접할 일은 많지 않았다. 오연복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일기

89) 『일기』 11. 2.

90) 1937년 6월의 전국 2,370面 서기는 1만 5,134명, 전라남도 252面 서기는 1,664명이다. 전국 면서기 학력은 중등학교 이상 졸업 14%, 초등학교 이상 졸업 74%, 초등학교 중퇴 6%, 書堂修了 6%이다. 전라남도의 면서기는 각각 13%, 71%, 3%, 12%이다. 전국 面技手 1,709명의 학력도 각각 70%, 26%, 3%, 5%이다.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查會諮問案參考書』의 〈農山漁村振興運動의 擴充強化에 關한 件〉(1938. 9).

91) 『일기』 3. 5. 오후에는 冊을 보다가 잠 잔(잠) 자고, 한일은 없었다. 나의 前程이 어찌 생각하면 참 可憐하다. 글씨(글씨)도 못써먹고.

92) 직원은 書記 吳然卿, 吳啓完, 崔在球, 吳鍾洌, 吳在振, 技手 河二松(雇員 洪判順, 備人 吳炳桓) 등이었다. 대부분 동복 오씨이고 하이송은 친구이다. 동복면, 『辭令原簿』.

에 일본인이 등장한 것은 6월 17일 투망을 하러 갔다가 화순에서 역시 투망을 하러 온 일본사람과 한 차례 마주친 것뿐이었다. 대부분은 그들과 마주쳐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에 섬처럼 떠 있는 이질적인 존재일 따름이었다. 게다가 面행정이란 시대가 어떠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따라서 이곳 사람들로서는 조선정부든, 대한제국정부든, 일제총독부 치하든, 官廳에서 그것도 고향마을 면사무소에서 행정 일을 보는 데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다.⁹³⁾ 또 이곳에는 농사 외에 별다른 산업이 없었으므로 교육받은 사람이 고향에 눌러앉아 出世한다는 것은 군청, 면사무소나 농회, 금융조합, 축산조합, 삼림조합 서기가 되는 외에 달리 무엇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 농촌청년들이 면서기가 된다는 것은 매년 반복되던 고된 농사일에서 벗어나는 것 훨씬 이상을 의미하였다. 무엇보다도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달라졌다. 일반인들로서는 至高하기 짝이 없던 군수나 군청서무주임을 만날 수 있었고, 농회나 각급 조합 사람들과도 접촉할 수 있었다. 그들과 인적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었다. 처지도 달라졌다. 행정기관이나 산하단체로부터 간섭과 통제를 받던 처지에서 비록 말단이지만 통치조직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 스스로 지도와 통제를 하는 입장이 되었다. 面이라는 행정단위, 통치단위를 움직이는 극소수자(inner circle)의 일원이 된 것이었다. 동북처럼 작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다. 이들은 面의 구석구석과 군청을 왕래하면서 견문과 교제를 넓힐 수 있었고, 기회가 닿으면 언젠가는 그의 형처럼 일본을 시찰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⁹⁴⁾ 오연복처럼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상황에 몰려 있던 고학력 청년들로서는 더없이 좋은 탈출구였다.

그러나 그는, 이곳 동북 오씨들의 정치적 자세가 아무리 보수적, 타협적, 친일적이고 또 그런 영향 아래서 이곳의 지역정서 역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도, 결코 개운하고 기쁜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렸을 때

93) 전남 곡성군의 班村인 오곡면 양반들은 일제에 비협조적이었다. 당연히 정치사회 진출도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1939년까지 그곳 면장만은 자신들이 맡았다. 면장만이라도 말아 兩班村으로서의 체통을 지키려 했던 것 같다. 洪性讚, 「韓末·日帝下の 社會變動과 鄉吏層」,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編, 『韓國近代 移行期の 中人研究』, 신서원, 1999. 이는 전남 보성군의 대표적 班村이던 得糧面の 梁氏들도 마찬가지였다.

94) 오연진은 1930년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金澤, 名古屋 등 일본을 시찰하였다.

의 일이고 또 우발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는 앞서 말한 대로 동북의 3·1만세시위를 촉발한 장본인의 하나였고, 광주고보 재학중에는 학교 안팎에서 벌어진 민족운동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의 고민도 하였을 터였다.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비록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학력에 어울리는 정도의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일기 책 곁장과 그 바로 안쪽에 '檀紀'를 적은 것도 예사로운 일만은 아니었다.⁹⁵⁾ 게다가 당시는 광주학생사건(1929) 재판이 진행중이었고, 동북의 光州유학생이자 그의 친구였던 구암리의 洪貴周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10월 18일)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 그래서였던지 그는 오랜 방황 끝에 면서기로 취직하면서도 "참으로 돈벌이로 나서기는 今日이 第一步를 내놓는" 것이라고만 언급하였을 뿐 일기 어디에서도 취직에 따른 감회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11월 4일에 정식으로 출근한 그는 다음날 하루를 문서정리로 보냈다. 6일에는 화순군청으로부터 農會費 調整업무를 하러 오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튿날 선배직원 吳啓完과 함께 군청으로 가서 郡守와 庶務主任에게 인사한 후 곧 업무를 보았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두서를 찾지 못한데다 업무도 매우 복잡했다. 이튿날에는 오계완마저 동북으로 갔다. 그래서 화순에 혼자 남아 '紛忙'하게 일을 보았으나 12일까지도 마치지 못했다. 나중에는 업무에 다소 익숙해져서 "일사천리로 事務를 보[기도]" 했지만 결국 마치지 못하여 그날 밤늦게 일거리를 가지고 동북 집으로 돌아왔다.⁹⁶⁾

11월 13일 농회비 조정업무를 모두 끝낸 그는 그날 오후 伐採割收納簿와 春蠶種대금을 조사하여 틀린 곳을 고쳤다. 16일부터는 삼림조합비 등 각종 납부금 징수에 매달렸다. 일요일인 16일에도 출근하여 화순군삼림조합 회계서기 朴景贊과 함께 종일 수납부를 조사하였고, 17~20일에는 읍삼리(칠정, 천변, 독상리), 읍애리, 안성리, 가수리를 출장하였으며, 22일에는 신율리로 출장을 갔다. 23일 면사무소에서 문서정리를 한 그는 24~27일에 복녕, 월송, 유천, 유치, 칠정리를 출장하였다. 29~30일에도 가수, 상가, 하가리를 출장하였다. 12월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농촌에 금전이 말라 납부금은 거의 징수되지 않았다. 어떤 날은 하루종일 한푼도

95) 앞의 주 2) 참조.

96) 『일기』 11. 8~12. 이 때 화순에서 식비 4원 40전, 자동차비 3원, 기타 수납전을 썼다.

견지 못하거나 겨우 10전을 받아오기도 하였다.⁹⁷⁾

面은 총독부의 말단 행정기구이자 일선의 對民접촉 창구라서 업무가 방대하였다. 당연히 면서기 업무가 쉽지만은 않았다. 빈번한 출장은 육체적으로 고달팠다. 먼길을 걷고 험한 산을 넘었으며 도중에 비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갇혔다. 때로는 洞閣이든 어디든 적당한 곳에서 잠을 청했다. 납부금을 받으러 온 면서기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다. 그렇다고 징수에 신경을 안 쓸 수도 없었다. 실적이 나쁘면 면장은 물론이고 상급관청인 郡에서도 “수시로 어느 것이든지 督促狀”을 보내 담당자를 압박하였다.⁹⁸⁾

힘들기는 내근도 마찬가지였다. 권업계와 산업단체 사무를 맡은 그는 한 달 사이에 春秋잠종대금, 온돌개량, 못줄(田植繩)공동구입, 焚口申込, 공동牧野場, 有償還配付비료대금, 戶稅, 靑刈大豆장려, 緣故임야讓與許可權引渡 등과 관련한 각종 공문을 수발하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군청과 농회, 삼림조합, 축산조합 등에서 나온 직원들과 업무를 협의하고 面行政研究會 개최를 준비하고 군청의 사무검열을 받았으며 군수의 납세선전講話에도 참석했다. 타지로 전임되어 가는 동북보통학교장 葛西悅泳(1923. 4~1930. 9. 29 在勤)의 환송까지 했다. 종일 서류정리에 골몰하였고, 당직 숙직이 아니더라도 밀린 업무 때문에 面所에서 잔 날이 여러 번이었다. 군청의 사무검열 때는 더욱 바빴다. 12월 4일 군청에서 검열을 나와 1929~1930년의 “文書를 놓고 생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그걸 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終日 餘暇가 없”이 서류정리를 했고, 마지막 며칠은 숙직까지 하였다. 당일에는 “걸릴 것이 없”을까 마음을 조렸다.⁹⁹⁾

그런데 그가 가까운 곳에서 바라 본 일제의 관료조직, 지방행정체계, 면행정은 상당히 조직적이었다. 동북면에서는 그가 출근한 지 열흘 만인 11월 14~15일에 면행정연구회가 열렸다. 일제는 강점 초부터 각 군별로 面事務研究會, 면행정연구회 등을 만들었고, 1930년경에는 이런 조직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 연구회는 郡, 面의 행정개선을 위한 정

97) 『일기』 11. 18. 읍애리에 출장...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歸也 ; 11.20. 참 말뿐이었지 무슨 돈이 징수되어야지!! ; 12. 12. 구암리 출장. 金錢이 막 貴한 모양이더라. 相當이 노력하나 若干 안 되어 ; 12. 14. 연둔리로 출장. 종일 一金 10전을 받아 가지고 오다.

98) 『일기』 11. 5.

99) 『일기』 12. 1~3.

기모임(초청강연, 회원연구발표, 질의토론, 기타)을 가졌는데, 회원은 군청직원, 면장, 面吏員 등이고 대개 군수가 회장을 맡고 郡의 庶務主任이 간사를 맡았다.¹⁰⁰⁾ 11월 14일 동북면에서 열린 면행정연구회에는 화순군수와 각 면장 등 4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읍내가 떠들썩하였다. 이들은 면사무소에서 군수 南廷學의 연설을 듣고 대지주 吳亨南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면서 민정도 파악하고 교체도 하였다. 이튿날 면장들은 동북지방을 둘러보고 군청직원들은 面업무를 시찰하였다. 오찬은 대지주 吳建基의 집에서 가졌다. 12월 6일에는 군수가 면사무소를 다시 찾아 納稅宣傳講話를 하였는데 그는 9월 10일에도 이곳에 왔었다.

이런 과정에서 오연복은 일제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지방행정운영에 새삼 놀라기도 하고, 군수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의 “熱辯, 雄辯”에 감탄하기도 했으며, 일본 하마구치(濱口) 수상의 저격소식에 놀라기도 하였다.¹⁰¹⁾ 그리하여 그는 군청직원들과 각 면장 등 40여 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郡守다운 郡守”의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군수의 모습에서 미래의 自畫像을 꿈꾸기도 하였다. 일제통치의 하급실무를 맡은 숙련된 면서기로 적응 변모해 갔던 것이다.¹⁰²⁾

그는 면서기로 근무하면서도 틈틈이 추수 등 그해 가을의 집안 농사일도 돌보아야 했다. 그래서 더욱 바쁘고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비로소 오랜 정신적 방황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 총독부 권력의 말단 관리인 면서기가 됨으로써 안정된 수입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돈, 금전의 결핍 문제를 해소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배경의 하나였다. 그는 앞서 말한 대로 그해 2월부터 10월 말까지 9개월 동안—그나마 10월에 지출한 30전은 면서기로 취직하기 위해서 이발한 비용이었다—월 평균 1원 29전만을 지출하였을 뿐이었는데(동경으로 주문한 약값까지 합하면 2원 40전), 면서기가 된 11월 이후는 씹씹이가 크게 달라졌다. 면서기가 된 후, 그해 일기책에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던 12월 14일까지, 약 한달 반 사이에 그는 무려 35원 12전 8리의 현금을 지출하였다(부록). 그리고

100) 吉村傳 編, 『面行政指針』, 567~569면의 〈晉州郡 ‘面事務研究會’ 규약〉, 1930년대에는 朝鮮地方行政研究會의 ‘支部’형태로도 만들어졌다. 『朝鮮地方行政研究』 8-10, 1929, 181면의 〈端川郡支部規約(1930. 9)〉.

101) 『일기』 11, 14~15.

102) 일제하 面직원의 自己啓發 의식은 松本武祝,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朝鮮人下級職員の意識構造』, 『歷史學研究』 797, 歷史學研究會, 2005.

그 사이 한달 치 월급 20원과 宿直料 30전을 받았으며, 며칠 후 12월 중순에는 한달 치 월급보다도 더 많은 연말보너스를 받았다.¹⁰³⁾ 지출내역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면서기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장, 필기구 구입비와 농회비 조정을 위해서 화순에 머물면서 썼던 차비와 식대, 기타 이발료, 煙草代, 燐寸代, 양말대, 편지대 같은 잡비였다. 다른 하나는 신문, 蠟燭, 비누(洗濯石鹼), 인조견, 당골, 川魚, 홍시, 약값 같은 생활비와 부친, 모친, 형에 대한 경제적 지원(또는 거래)이었다.

그는 난생처음 돈을 벌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그것으로 집안 생활비를 보태고 부친과 형도 도울 수 있었다. 모친의 보험료까지 내주어 모처럼 효도도 할 수 있었다. 경제적 주체로서 당당하게 자립한 것이다. 차제에 그는 답답한 연월리 골짜기를 벗어나 面의 행정실무를 맡음으로써 자기실현 욕구도 충족할 수 있었다. 면사무소나 각급 관공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었다. 면서기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처럼 여러 가지 변화가 수반되는 일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오연복처럼 평범하고 나약하기까지 했던 한국의 청년들, 특히 고학력의 청년들이 총독부 권력의 말단 구성원으로서 편입되어 간 데는 이상에서 본 대로 그들 나름의 생존전략이 개재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면서기로서 익힌 근대행정업무 처리능력을 바탕으로 해방 후 그 지방의 유지, 엘리트로서 성장해 가고 있었다.¹⁰⁴⁾

103) 월급은 1932년 6월에 22원, 1934년 6월에 24원, 1935년 12월에 26원, 1937년 3월에 28원(特別增給'으로), 1937년 12월에 31원으로 각각 올랐다. 연말에는 '事務格別勉勵賞與'金을 받았는데, 1931년 26원, 1932년 33원, 1934년 32원, 1935년 32원, 1936년 38원, 1937년 44원, 1938년 52원, 1939년 57원 등 한달 치 월급보다 많았다. 동북면, 『辭令原簿』.

104) 오연복은 1940년 12월 31일 면서기를 사직하고 同福生藥組合 書記가 되었다(조합장은 대지주 吳建基). 1945년 12월 31일 서기로 복귀하여(당시 면장은 空席, 부면장은 사회주의자 河達泰였다) 이듬해 1월 24일 하달태가 물러나면서 부면장이 되었으나 그 해 9월 30일에 사직하였다. 그 후 동북에서 6·25 후까지 사법서사를 하다가, 1953년 2월부터 1971년 9월까지 천변리 150번지에서 행정서사를 하였으며, 1950년대에는 동북면농지위원(1957~1961), 초대 동북면의회의원(1952. 4~1956. 8, 초대 의장), 자유당동북면당부위원장(1956년 현재)을 지냈다. 그 후에도 그는 동북국민학교학부모회장(제5대, 1974. 3~1976. 2), 동북노인회장을 지냈으며, 1982년에 '同福面民의 賞'을 수상하였다. 면서기로 출발하여 지방행정업무를 익힌 후 지역유지, 지역엘리트로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의 장남 오재찬은 1985~1988년간에 民選으로 동북단위농협 조합장을 몇 차례 역임하였고, 형 吳然賑은 1948년 6월 18일 동북副面長에 발탁되어 한국전쟁 때 戶籍 등 중요 문서를 피난시키기도 했으나 우익인사로 지목되어 좌익에게 피살당하였다. 洪性讚, 앞의

V. 결 어

일제하의 농촌생활에는 농촌 특유의 여유와 느긋함이 있었다. 때로는 '뱃살을 잡고 웃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고된 농업노동에 따른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있었고, 그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도 있었다.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에는 돈에 대한 渴症,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열망, 자기실현의 욕구가 자리잡고 있었다. 도시에서 高普를 다녔거나 그 이상의 학교를 다니면서 도시생활, 도시문명을 체험한 후 다시 농촌으로 들어가 무급의 가족종사자로서 부모의 농사일이나 돕고 있었던, 사실상 미취업 청년실업자에 불과하였던 농촌의 고학력 청년들은 더욱 그랬다. 대도시를 浮游하며 룸펜으로 살아갔던 도시의 고학력 청년들도 사정은 같았다. 당시의 가족제도 상속관행 하에서 차남 이하는 더욱 그랬다. 별다른 희망도 출구도 없었고, 부르는 곳도 갈 곳도 없었다. 그저 안으로 무한히 상처를 받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린 일종의 심리적 공황, 정신적 자폐 상태에 있었다. 오연복이 그런 경우였다. 1927년에 연희전문학교 상과교수 李順鐸이 한국인 가운데 정신병, 신경쇠약증 등 신경계통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목하여 그 원인을 정치적, 사회적 불안(생존고)과 경제적 불안(생활고) 때문에 한국인의 "性質들이 살살 꼬여짐과 동시에 甚하여는 此種 病狀을 일으킴으로써 死亡者의 수가 많다"고 진단했던 것은 식민지 한국의 이런 현실을 두고 한 말이었다.¹⁰⁵⁾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아서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던 이들 고학력 청년들이 택할 수 있었던 길은 그리 많지 않았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러한 현실을 가져온 일본제국주의, 좀더 광의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눈을 돌려 그에 저항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다.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길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가정에서 유교적 가치관을 내면화한 세대들로서, 비록 부모세대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대부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 애정 있고, 형제간 화목하며,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

책 : 동북면, 『辭令原簿』; 동북면, 『1972. 9. 이양 행정서사허가대장』; 문제선, 『북구골-同福史』, 향지사, 1997, 59, 63면.

105) 李順鐸, 「朝鮮의 人口統計」, 『現代評論』 1-3, 1927, 21~22면.

다. 게다가 유년기 이래 받아온 학교교육의 영향하에서 근대자본주의의 합리적 사고 역시 내면화한 터였다. 그리하여 현실에 대한 불만만큼이나 자신의 나태한 생활태도를 거듭 반성하였고, 고된 노동과 정신적 답답함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도 '實業主義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노동을 神聖하게 여겨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하였다. 오 연복이 그런 경우였다.

이런 가운데 농촌의 고학력 청년 가운데 일부는 그날그날 반복될 뿐이던 의미 없고 무기력하기만 했던 일상에서 벗어날 탈출구로서 면서기, 농회서기, 금융조합서기, 산업조합서기 등이 되어 식민지 권력기관의 말단 요원으로서 흡수되어 갔다. 권력의 입장에서야, 이들이야말로 가정과 학교에서 유교적 가치관과 근대 합리주의를 체득한 성실한 사람들이자 근대 행정업무를 이해하고 집행할 능력을 가진 有識者들이었다. 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달리 취직할 곳이 없던 데다, 面행정이란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또 그곳은 그들의 고향이었다. 면장부터 면서기까지 평소부터 잘 알던 학교동창이자 동네사람이고 동족이었다. 막상 식민자인 일본인의 출입도 많지 않았다. 큰 이질감이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비록 말단이지만, 면서기로 취직하여 권력기관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面단위 농촌사회 수준에서는 面을 행정적으로 움직여 가는 극소수 통치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막상 그러한 기관에 몸을 담고 가까이 서서 바라본 일제의 지방행정시스템은 상당히 조직적이었고, 그 기관의 長인 군수나 면장 역시 그럴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보였다. 그래서 이들은 군수나 면장의 품모에서 미래의 자화상을 꿈꾸기도 하면서 점차 총독부 말단기관의 숙련된 요원으로 변모해 갔다. 일제 강점기에 보통의 농촌청년들, 특히 고학력 청년들이 총독부 권력의 말단 통치조직에 편입되어 갔던 이면에는 그들 나름의 생존전략이 개재해 있었던 것이다.

〈 부 록 〉

1930년 오연복의 현금지출

월 일	금 액	지출내역	금 액	수입내역
1월 31일	30錢	切手代		
2월 3일	40錢	藥代(팔독약)		
2월 2일	10錢	藥蓬		
2월 3일			45圓入	金指環及代
2월 17일	10錢	晝食代		
2월 18일	50錢	自動車費(自和順 至綾州)		
2월 19일	40錢	洋襪代 及 切手		
2월 20일	20錢	食代		
2월 20일	2원 40전	藥代		
2월 20일	50전	乳取器		
2월 21일	35전	汽車費		
3월 1일	21전	切手 葉書		
3월 7일	20전	비누		
3월 8일	15전	切手 葉書		
3월 11일	65전	理髮及明太魚?		
3월 16일	10전	然忠去		
3월 16일	25전	석작, 걸바구니		
3월 9일	40전	草靴 及 煙?草代		
3월 9일	5전	花鬪代		
3월 21일	15전	崔成銀拂		
3월 25일	49전	피문어, 설탕, 명태		
3월 26일	16전	藥代		
3월 27일	16전	藥代		
4월 5일	10전	切手代		
4월 5일	1전	然哉藥		
4월 30일	1원 50전	피문어, 농어, 비자		
5월 27일	20전	固腸丸		
6월 1일	5전	膏藥		
6월 8일	60전	理髮 及 帽子		
8월 16일	60전	胎毒膏 及 아세노고 及 膏藥		
			金 50錢	收入
(10월 28일)	30전	理髮代		
(11월 2일)	15전	切手代 3錢 5枚		
	5전	新聞紙代金		

	20전	도장갑		
(11월 12일)	3원	自動車費		
(11월 12일)	4원 40전	食費		
	10전	吳啓完貸去		
	12전	煙草代		
	10전	其他 鐵筆等		
	25전	兄任		
	18전	蠟燭代		
	18전	洗濯石鹼		
	82전	父親께로		
합 계	9원 85전		(10월 28일 이후 합계)	
	14전	筆代		
	35전	兄任宅키代	(11월 24일?)	
	1전	然完藥		
	6전	瑛玉藥		
	9전	膏藥代		
2원	20전	川魚代		
	5전	瑛玉藥		
	7원去	兄任께서	(12월 3일?)	
	50전	然寶藥		
			50전來	父親께서
			20원 30전	月給及宿直料
(12월 8일?)	75전	在振母에게. 고사갑(값?)		
1원	25전	萬年筆代		
	10전	紙代		
	1전	燐寸		
	20전	洋襪 1足		
2원	2전	母親保險料		
4전	8리	紅柿代		
	12전	切手代		
	20전	人造絹代不足額		
	2전	瑛玉藥		
	20전	당골		
	30전	理髮代		
	10전	鐵筆		
	1전	封套		

자료 : 『일기』. 중간선(10월 28일) 이후의 지출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 속의 날짜는 필자가 일기의 본문에서 해당 지출사항을 찾아 적은 것임.